

驪江처럼

2013 하반기 통권 제22호



여주문화원
Yeosu Cultural Center

金堂川 금당천

원천석(元天錫 1330~ ?)

여말 선조 두문동 72현 중 한사람, 관향은 原州, 호는 耘谷

分割封疆古有源	경계를 나눔에 예로부터 물이 있었으니
一溪中拆二乾坤	시냇물 가운데서 두 세상이 나뉘었구나
臨流駐馬時回顧	흐르는 물가에 말 멈추고 돌아보니
前足黃驪後北原	발 앞은 황려(여주)땅, 뒤는 북원(원주)땅

고려와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체가 바뀌던 무렵, 제자 태종의 간곡한 현실정치 참여 요청을 뿌리치고
신록사에 들러 나옹스님의 제자들이 주는 미나리와 오이에 고맙다는 답시를 거둬 건네며 유유자적
오가던 운곡께서 금당천(당시 여주와 원주의 경계) 물가에서 지은 시이다.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는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운곡의 흔적을 따라 여강길 걷기라도 나서봄이 어떨지...

Contents



제자題字 ‘驪江처럼’ _ 사농 전기중

여주시를 관통해 흐르는 남한강을 여주시사람들은 여강(驪江)이라 부르며 수 천 년을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여강은 여주를 리마려초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었던 황려(黃驪)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주의 강이라는 자부심과 애착이 오롯이 그 이름에 담겨있다.

표지사진 _ 사진작가 홍창희

은모래사진동우회 회원

표제시 金堂川 금당천	
포토에세이 산천은 의구한데	2
발간사 지역문화 창달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영 3
특집-세토우치 방문기 여주 사람들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 방문기	이동선 4
제9회 류주현 문학상 「비너스의 서랍」, 수상소감	한수경 10
여주의 아름다움 襟江樓(금강루)는 어디에	전기중 12
우리 동네 이야기 가정리와 반여울의 전설	16
문학 속의 여주 여주 여인의 송고한 향취	유명은 18
여강문화 여강의 역사와 문화	조성문 20
아름다운 사람들 청년, 족발로 세상을 잡다	유명은 24
여강 편지 여주의 해맞이	서순태 27
답사기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윤석민 28
여주의 민속 조기울·해촌 낙화놀이	29
여주의 문화예술 삼박자를 갖춘 도예인, 도예가 박재국	30
집현전 세종시대의 복지	조성문 32
문화원이 한일 문화원 활동 소개(2013년도 후반기)	36
회원 동정 회원 경조사	37
문화원 가족 회원 명단	38
문화원 안내 여주문화원 회원가입 안내	39

산천은 유구한데

천년고찰 신륵사

돌탑도 그대로,

고목도 그대로,

세월따라 사람들만

덧없이 오고갈 뿐...



※ 1943년, 신륵사 극락보전 앞에서

지역문화 창달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영 | 여주문화원 원장

희망으로 맞이했던 계사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우리 고장 여주가 시로 승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한해였으며 유례없는 집중호우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민의 슬기와 온정이 넘쳐나던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주문화원은 세종대왕송모제전과 세종문화큰잔치, 명성황후송모제전 및 여주 집현전과 여주문화특강을 통하여 역사 속에 빛나는 여주의 옛 위상을 찾아내어 오늘에 되살리는 사업을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주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문화원 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두번째「여강처럼」에는 여강 문화, 세종의 복지, 시문학 속의 여주, 2013 세토 유치국제예술제 탐방기 등이 실려 있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일독을 권하며 지인들께도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토문화는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삶의 결정체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귀중한 우리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문화원이 심혈을 기울여 발간하고 있는 「여강처럼」이 우리 여주의 향토문화를 알리는 청병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여주 사람들의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 방문기



이동선 | 여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한국 사회에도 마을 공동체,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그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 번역어인 '마을 만들기'는 우리 사회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마찌즈꾸리'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시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을 가꾸어 간다는 의미로 전국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칭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커뮤니티비즈니스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공유 경제(The Sharing Economy, Economy of Communion;EOC),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공유도시(Sharing City) 등과 연계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지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 지고, 공간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과정이 퇴적되어 쌓이는 지층으로 형성되어 간다. 공간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공간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밀착되어 있다.(박승규, 『일상의 지리학』,2009)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 가야할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오시마 미야노우리항에 설치되어 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빨강호박」(2006) 옆에서 있는 노인

A R T S E T O U C H I

2013년 9월 23일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여주시는 지난 1895년 고종 32년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 이후 118년 만에 시로 승격됐다. 우리는 여주시의 공간을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주에서도 농촌 어메니티(amenity), 농촌 관광 사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시도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여름, 여주 사람들이 '여주시'가 가야할 길을 찾고자 일본에서 개최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을 방문하였다. 여주문화원, 여주대학교, 세종사진연구소의 문화인, 예술인, 교수 14명이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여름 시즌에 방문하였으며, 세종사진연구소는 9월 가을 시즌에 2차 방문을 하였고, 10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여주시민들이 함께 다녀왔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은 어떤 행사이고, 여주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기에 이들의 방문이 필요했는가?

여주 방문단은 7월 25일 다카마쓰시에 숙소를 잡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들을 오가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짧은 방문 기간이라 나오시마를 중점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카마쓰 항구와 나오시마 미야우라 항구에 제작된 작품, 혼무라 지역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폐가를 이용한 작품, 혼무라 지역의 오래된 집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을 설치한 이에(家) 프로젝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추미술관과 모네의 그림을 옮겨 놓은 듯한 연못이 있는 정원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이자 철학자인 이우환 선생의 미술관을 시간 관계로 들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모든 작품들의 공통점들은 모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마을)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융화되어 있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운영은 철저하고 매우 전문적이어서 질서 있고 차분하게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라는 혼슈[本州] 서부, 규슈[九州], 시코쿠[四國]에 에워싸인 내해에 있는 섬들에서 2010년부터 3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현대 미술을 소재로 하는 국제예술제이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개최되는 섬과 항구는 일본 근대 산업 발전의 결과로 산업 폐기물과 오염 물질로 오랫동안 훼손되고 방치돼 섬 주민들이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나는 버려진 공간이었다. 세토나이카이 섬들의 변화는 후쿠다케 소이치로 이사장(베네세 홀딩스, 후쿠다케재단)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1989년 나오시마(直島)에 '나오시마 국제캠핑장'을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감수를 받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후쿠다케 소이치로의 작업은 1992년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1997년 이에(家) 프로젝트, 2004년 지추미술관, 2009년 목욕탕 아이러브유, 2010년 이우환미술관으로 이어졌다.



나오시마 마을 골목길에 있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뮤지엄(ANDO MUSEUM)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다른 섬들로 확장되면서 2008년 이누지마(犬島)에 폐허가 된 구리 제련소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개조하여 아트 프로젝트 세이렌쇼(精鍊所), 2010년에 테시마(豊島)에 테시마미술관을 오픈하였다.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도쿄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산간지역 에치고츠마리에서 2000년부터 3년마다 열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술축제로 자리 잡은 '에치고츠마리(越後妻有, Echigo-Tsumari) 대지의 예술제'의 총감독 기타가와 프람이 합류하면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로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있기 위해서는 섬 환경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작품과 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한 몫을 했지만, 거대하고 지속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장들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버려진 섬과 다름없던 나오시마를 '현대예술의 낙원'으로까지 재탄생시킨 후쿠다케 소이치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격조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그리고 에치고츠마리 트리엔날레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감독을 역임한 기타가와 프람과 같은 거장들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 관심을 갖고 방문한 이유는 거장들의 철학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을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성과 때문이었다.

후쿠다케 소이치는 작가들로 하여금 직접 섬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 즉 장소 특정적 작품(Site-specific Work)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작품이 아니라 인간 즉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오시마 혼무라(本村)지구에서는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현대미술 작품으로 바꾸는 이에(家)프로젝트를 통해 '있는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신념을

구현하였다. 그는 인간은 행복해야 하고, 행복은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 때 가능하고 말한다. 좋은 곳은 오랜 인생을 살아 온 '노인이 웃으며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세토 내해의 섬들에서 현대미술을 도구로 삼아 '노인이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했다. 그는 공익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통해 기업이 문화나 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재단이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고, 배당금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인간과 기업의 모든 활동은 좋은 커뮤니티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다케 소이치가 추진해 온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로 연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에치고츠마리 대지의 예술제 총감독인 기타가와 프람의 참여가 있었다. 대지의 예술제는 니가타현 남쪽 산악 지대에 위치한 에치고츠마리(越後妻有) 지역을 배경으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현대 미술제이다. 2000년에 첫 회를 시작하여 2012년까지 매 3년 마다 다섯 차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지의 예술제는 인구과소화와 고령화로 침체되어 있는 산간 지역 마을에 활력을 실어주었으며, 지역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를 예술을 매개로 발굴하여 지역 재생의 활로를 구축하였다.

기타가와 프람은 에치고츠마리가 소개한 니가타가 고향이다. 기타가와 프람은 자기 자식조차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만큼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이 마을을 예술을 통해 외부와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대지의 예술제의 성공에는 예술과 나란히 공존하는 자연과 자연에 기대어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며, 미술 작품을 한 번에 다 볼 수 없도록 에치고츠마리 전역에 산재시켜 놓은 비효율성의 미학, '코헤비타이'

A R T S E T O U C H I



(작은뱀 부대) 라는 애칭을 가진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성과 적극성, 에치고츠마리 지역을 고향으로 둔 도시인들의 고향 세, 후쿠다케 소이치와 같은 기업인의 적극적인 후원과 함께 무려 2000회의 설명회를 가져 지역 공무원과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낸 기타가와 프람의 신념과 열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인 철학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에 접목을 시켰다. 에치고츠마리가 대지였다면, 세토우치는 바다로 바뀌었을 뿐이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세토나이카이의 모든 섬에 활력을 되찾아 희망을 주는 바다 즉 '바다의 복권'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섬에 사는 주민들, 특히 노인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 온 그들의 생활 양식과 환경의 가치를 인정받아 금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예술을 지역의 생활양식과 풍경의 자산을 축복하고 그곳의 매력을 발견하게 돕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만남과 대화를 가졌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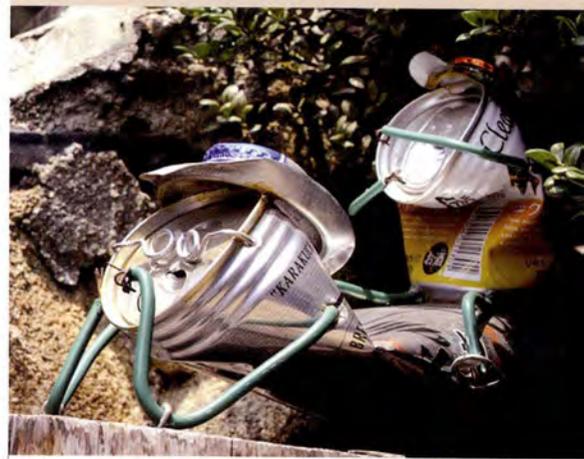
“노인들의 미소를 보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

“지역의 재발견이 우선이다. 현대미술은 그 수단일 뿐이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와 에치고츠마리 대지의 예술제, 두 현대미술 축제는 소외 받은 지역의 생활 문화 역사를 예술을 통해 활성화시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 예술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세계 여러 관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계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 전시 행사로 끝나는 다른 예술 행사와 달리 세계 유명 예술가들의 창작품이 지역과 결합되어 예술관광자원으로 활용되거나, 수많은 폐교와 빈집 그리고 폐기된 공장들을 활용한 작품들을 현지 주민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관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같은 방식은 우리나라 농촌 지역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광역적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섬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섬사람들과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가를 볼 수 있었다. 3박 4일의 기간은 너무 짧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더 많은 섬과 많은 작품을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 더 많은 섬사람들과 관람객들을 만나보지 못한 아쉬움들이 그렇다. 일행들은 다음 방문을 서로 약속해 본다. 불편함을 가치로 내걸어 한 번에 다 보지 못하고, 다시 방문하도록 만드는 설계자들의 의도가 조금은 알밋고 알팍한 상술은 아닌가 잠시 의심도 해보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배려였다. 작품과 작품 사이를 지나며 마주 치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 또 그 사이를 지나며 내 마음 속에서 오고간 수많은 생각들을 가능하게 해 준 친절함 배려였다.



▷ 나오시마 어느 집 담장에 놓인 주민들의 작품



2013 류주현 문학상 수상 소감,

‘비너스의 서랍함’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도 아닌 설익은 잠 속에서 어영부영 꿈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류주현 문학상 수상이라는 무게감을 제 몸의 신경이 감당하기 벅찼던 모양입니다. 일어나보니 수상소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네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할 수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저를 억누르는 무게감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문학계의 선배들을 보면 일찍부터 재능을 보여 자연스럽게 작가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감히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는 못했습니다. 제게 문학적 재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의 그 지난한 과정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작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여러 사람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봐 스스로 경계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반전을 예비해 두는 모양입니다. 쓰기를 멈춘 시간으로 저의 문학에 대한 상사병은 더 깊어졌고 쓰는 것보다 쓰지 않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응어리를 어떻게든 풀어내야겠기에 쓴 소설이 「그들만의 궁전」이고 이 작품으로 저는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등단 후에도 두려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작가라고 부르면 금방 얼굴이 빨개져서 거북해지곤 했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평생을 살기엔 너무 미미한 그릇이 아닌지 스스로 검증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쓸데없이 종이와 연필만 낭비하면서 자기만족에 머무르는 작가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만만찮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고스란히 녹인 작품이 「비너스의 서랍함」입니다.



한수경 (韓洙景)

전북 김제 출생.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소설가 및 시나리오 작가.
2005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그들만의 궁전」이 당선되었고,
2008년 스토리뱅크 창작기획안 모집에 「대여인생」으로 시나리오부문 우수상 수상

[작품]

장편소설 「그들만의 궁전」, 「비너스의 서랍」, 「아라비안나이트인서울」
단편소설 「청계천」, 「시물레이션라이프」, 「너를 접수한다 오버!」, 「히스토리」 「팝콘」, 「거기 섬이 있었다」 등
시나리오 「대여인생」

이번 수상으로 저는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쓰고 있는 이야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작가로서의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고시절 저는 학교 공부는 뒤로한 채 게걸스럽게 읽을거리를 탐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탓하지 않고 아버지는 마치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여기저기서 헌책을 물어다 제 책상 위에 놓아두셨습니다. 지금의 저는 온전히 그분의 열성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미진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가능성을 발견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진하여 좋은 글 쓰겠습니다. 더불어 류주현 문학상을 후원해 주신 여주시와 여주문화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襟江樓(금강루)는 어디에

‘외로운 성물굽이 벼개를 삼고
서리 내린 가을하늘 맑기만 하네’



사농 전기중

초겨울이건만 천서리에는 막국수 먹는 사람들이 제법 북적인다. 편육에 소주 三杯, 막국수 한 그릇 비벼 마음에 점을 찍고 천천히 걷는다. 어느덧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든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앞에도 뒤에도 인기척이 없는 호젓한 山行이다. 홀연히 파사성주가 되어버린 기분이다.

西風에 뒹구는 마른 잎들이 묘한 연주음이 되어 나도 모르게 ‘황성옛터’를 흥얼 대게 한다. “아~ 가없다 이내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목도리를 풀었다. 시원한 산바람이 뒷덜미를 휘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발걸음은 이미 성벽 위를 걷고 있었다. 이 산위에 돌을 모아 빙빙 둘러놓고 지키며 싸움질을 시작한 것이 대략 2,000년 전이라니... 내가 밟고 지나가는 돌 하나마다 피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다.

파사성 축성에 관한 기록은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였던 1595년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의 글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파사 옛 성은 여주 아래 강변에 있다. 임진 난리 때 적이 군사를 나누어 한 길은 죽산으로 부터 용인을 거쳐 한강 남쪽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 길은 충주로 부터 여강을 건너 서울 동쪽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경기방어사 변응성(邊應星)이 파사성을 수리하여 도성 상류를 견고히 하고자 주청하였다. 내가 그 의론을 주장하였으나 역사가 커지면 백성을 너무 수고롭게 할까 걱정되어 황해도 승군총섭 의엄(義嚴)으로 하여금 떠돌이 승려들을 모아 쌓도록 하였다. 수년 만에 성이 완성되었고 망루와 군기가 모두 갖추어져 하나의 요새가 이루어 졌다. 내가 가서 보고 그 완성을 기뻐하며 시를 지어 주었다.”

婆娑城上草芊芊(파사성상초천천)	파사성 위에는 풀잎이 무성하고
婆娑城下水縈迴(파사성하수영회)	파사성 아래는 물이 돌아 흐르네
春風日日吹不斷(춘풍일일취불단)	봄바람은 날마다 쉬 없이 불어와
落紅無數飛城隈(락홍무수비성외)	붉은 꽃잎 하염없이 성 모퉁이 날리누나
道人神眼覩天奧(도인신안처천오)	도인의 밝은 눈은 하늘 이치 엿보아
一夜昆明生劫灰(일야곤명생겁회)	하룻밤 새 곤명지에 겁회가 생겼구려
金剛百萬奉指揮(금강백만봉지휘)	금강역사 백만대군 받들어 지휘하여
尺劍長嘯臨江臺(척검장소임강대)	긴 칼 비켜 차고 강루에서 휘파람 부네

※겁회 : 세상이 파멸 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큰 불의 재

축성하게 된 연유와 축성 주창자 변응성, 총책임자 의엄까지 잘 기록하였고, 스님이 옛 우물을 발견한 공로와 승병을 금강역사에 비유하며 상세함을 보였으나, 떠돌이 중이라는 대목과 長老,道人,神眼이라는 칭송 대목은 서로 섞이지 못하고 걸돌아 보인다. 여하튼 제목은 '파사성의 의엄장로에게 써 줌'이다.

의엄스님은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로 임진란 초기 스승을 도와 5,000여 승병을 이끌고 구월산 일대에서 적과 싸웠고, 평양성 탈환 전투도 하였으며 선조의 환도에도 앞장서서 황해도 승병도총섭의 직책을 받은 상태였으며, 1595년 축성을 시작하였고 6월에는 승려의 자유로운 도성 출입과 처우개선을 선조에게 직접 상소하기도 하였다.

이듬해(1596년) 서애는 방수순심어사(防守巡審御史)로 순무 중이던 자신의 제자 정경세(鄭經世)를 이곳에서 만나 詩 한편을 짓는다.

婆娑城下路(파사성하로) 파사성 아랫길 지나가다가
 立馬意如何(입마의여하) 어찌하여 말 세우고 멈추었던가
 春草爲誰綠(춘초위수록) 봄풀은 누구 위해 저리 푸르며
 江流空自波(강류공자파) 강물은 부질없이 홀로 춤추나
 宇宙全才少(우주전재소) 세상에 온전한 선비 드물고
 山河遺恨多(산하유한다) 산하엔 한 품음이 많이 있다네
 平生忠孝願(평생충효원) 충효로 평생을 살려 했건만
 末路恐蹉跎(말로공차타) 늘그막에 어긋날까 두렵구나

전란이 소강상태였지만 백성들의 참상과 국토의 피폐함을 온 몸으로 감당하고 수습해야 하는 최고위급 공직자로서 오랜만에 이심전심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 속마음을 그대로 토해낸 듯하다.

푸르게 돌아나는 봄풀도, 춤추며 흐르는 강물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끝 모를 전란의 와중에서 자신의 불확실한 노년에 대한 탄식이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또한, '휴가를 얻어 부모님을 뵈러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사성에서 묵으며'라는 긴 제목의 시를 보자.

東行一百里(동행일백리)	동쪽으로 향하는 백리 여행길
夜宿婆娑城(야숙파사성)	밤 되어 파사성에 묵으려 하네
孤城枕水隈(고성침수외)	외로운 성 물굽이 베개를 삼고
霜落秋天清(상락추천청)	서리 내린 가을하늘 맑기만 하네
霜落秋天清(상락추천청)	서리 내린 가을하늘 맑기만 하네
更殘戍角動(경잔수각동)	수루에 나팔소리 겨우 들리고
月暗寒湖生(월암한호생)	달빛은 찬 호수에 돌아나는데
病客有遠思(병객유원사)	병든 객은 먼 일을 생각하느라
輾轉夢不成(전전몽불성)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네
研思非我力(연사비아력)	생각해도 내 힘으론 못 이룰 일을
悠悠空復情(유유공복정)	공연히 부질없이 또 품는다네
乾坤浩無際(건곤호무제)	하늘과 땅 아득하여 끝이 없건만
明發還孤征(명발환고정)	날 밝으면 외로운 길 다시 나서리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일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공인의 숙명과 고뇌를 적으며 고단한 삶을 스스로 슬퍼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애는 '파사성주에게 주다'라는 시에서 중구(9월 9일)를 맞아 성주와 취하고 싶다며 전편과는 달리 약간의 여유를 보이기도 하며, '파사성에 묵으며 금강루에 올라'에서는 제목에서 보듯 금강루(襟江樓)의 루명(樓名)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답답함을 호기롭게 토로하는 구절도 보인다.

임진란이 터지고 이듬해인 1593년 선조는 사명대사에게 당상관을 제수하고 승병의 전투 참여를 독려하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전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휴정과 유정 외에도 영규, 처영, 의엄, 법건, 행사, 영주, 견우, 해안, 인오, 법정, 혜희, 의능, 설미, 신열 등의 승장들은 전투에도 참여하고, 지방에서 의병도 하고, 군량미 조달도 하고, 축성도 하고, 왜장을 만나 담판도 했는데 그 공로로 거의 다 직첩을 내렸으나 일부는 받고 몇 분은 거절하고 산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1595년 의엄은 파사성의 축성을 명받아 당대 최고위 관료이자 유학자였던 서애로부터 장로와 도인이라는 칭송까지 받았지만, 전쟁이 겨우 마무리된 1600년 봄 성균생원 신경락은 의엄스님을 축재, 축첩 등의 혐의를 들며 내칠 것을 상소하고 임금은 조치하겠노라고 답한다.

최립(崔笠)의 詩에 의하면, 의엄이 환속하여 곽진경(郭震卿)으로 중추(中樞)벼슬을 했다하니 이때쯤 인 듯하다.

다시 1605년 7월 비변사가 아뢰기를, 파사성에 사람들이 다나가지서 둔전은 황폐하고 성첩은 무너지고 기계는 못쓰게 되었으니 영주(靈珠)라는 승려에게 명하여 다시 수선, 수호케 하자고 하니 윤희하였다한다.

다 무너져버린 성을 개축한지 5년 만에 총책임자는 탄핵을 받고 성에서 내려온다. 다시 5년 후 성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떠나자 비슷한 자에게 들어가 손 좀 봐서 살으라.... 국방의 대사를 참으로 맥아리 없게 처리한 듯하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다산(茶山 丁若鏞)은 선산이 있는 충주 하담(荷潭 - 현 충주시 금가면)으로 가는 뱃전에서 시를 지었다.

水北婆娑樓(수북파사루) 물 북쪽에 자리 잡은 파사루는
當時控禦雄(당시공어웅) 당시에는 치고 막는 요새였는데
自從倭寇返(자종왜구반) 왜구들이 돌아간 이후부터는
無復記嚴公(무복기엄공) 다시없네 의엄스님 기억하는 이

파사성에서 스승(西厓) 서애를 뵈고 시를 받았던 우복 정경세(愚伏鄭經世)는 훗날 서애의 막내아들에게 준 詩에서

河上傳家只墨莊(하상전가지묵장)

하회의 스승님 댁에는 유묵과 집 한 채

兒孫疏礪不充腸(아손소려불충장)

자손들은 나물밥에 주린 배를 못 채우네

如何將相三千日(여하장상삼천일)

십년의 정승살이 어떻게 지냈기에

併欠成都八百桑(병흥성도팔백상)

어찌 뽕나무 800그루도 없단 말인가

영웅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태를 꼬집은 다산의 시와 청백리의 곤궁함(제갈공명이 옥야천리의 성도에서 승상을 지냈지만 죽을 때 뽕나무 800그루와 척박한 땅 15경만 있다고 하여 '성도팔백상(成都八百桑)'은 청백리의 상징인데, 그 만큼도 못함)을 읊은 정경세의 시를 보며 삼시세끼 따듯하게 먹고 배를 문지르며 '황성옛터'나 부르는 무지렁이 삶을 장탄식하면서 이호의 노을을 바라본다.

서애, 의엄, 변응성, 정경세, 영주, 신경락, 다산이 자꾸 생각난다.

아~ 한없는 이 설움을 가슴속 깊이 묻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옛터야 잘 있거라...

가정리와 반여울의 전설

옛날 고려시대 원주 지내촌(原州 地內村, 지금의 북내면 가정리)에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의 이름이 가정(稼亭)이다.

고려 충숙왕이 다시 복위한 무인년(戊寅年, 1338년)의 이야기이다.

석양이 질 무렵 멀리 봉이고개(지금의 신록사와 소지개 사이의 고개)에서 괴나리봇짐을 진 초라한 옷차림의 장년이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재를 넘자 신발을 벗고, 경기와 북원(지금의 원주) 경계에 다다르자 버선을 벗고 맨발로 금당개울을 건너 지내면(地內面)으로 들어섰다.

금당개울을 건너서 가만히 산을 둘러보니 산세가 유하고 높은 봉은 그윽해 보이니, 촌락에 멋이 있고 또 머물 만한 곳인 듯하였다. 한 골짜기를 찾아드니 어둡기 시작하는데 집들은 과히 크지 않으나 그런대로 먹고 사는 집 같이 보이는 곳이 두 집뿐이었다. 한집에 가서 유하기를 청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하였다. 다음 집 문밖에 가서 사람을 찾으니 노파 하나가 나왔다. 하룻밤 유하기를 청하니 선뜻 대답을 한다. 그러면서, “저 아래 집이 있는데 여짜서 예까지 올라오셨소! 아참 그 집에서는 유하는 것을 꺼리지요. 혹시 처녀를 동원하러 온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서 묻지도 않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래 그 집에서는 어째 사람을 재우지 않소?”

“그 집에 과년한 처녀가 있는데 혹시 원나라에 붙잡혀 갈까 두려워 그럽죠. 더구나 무남독녀라서 더욱 겁을 내지요.”한다. 이런 산간 촌락에까지 동녀(童女) 차출이 있으니 참으로 근심스러운 일라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보개산(지금의 보금산)에 올라가 여흥의 강변과 들판을 내려다보니 어제 저녁에 쉬던 외딴집 근처가 산세로 보아서 머물만한 곳이었다.

그는 바로 정자를 짓고 정자 이름을 가정(稼亭)이라고 명했다. 동네사람들은 그 정자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경체를 알 수 없었다. 초라한 모습으로 보아 가난한 사람 같기도 하고 늘 조용히 정자에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같기도 했다. 어느 해 7월, 삼복더위가 극심했다. 바람 한 점 없어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날씨에 뜨거운 햇빛만 내려쬐는 한낮이었다.



농부들도 더워서 들에 나가지 못하고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잠시 후에 보개산과 봉미산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리기 시작하더니 천둥과 번개가 연이어 일어나며 폭우가 쏟아졌다. 무서운 폭우에 금당천 물이 갑자기 불어났다.

비가 그치고 나서 여흥 쪽을 건너다보니 일대의 사령들이 내려와 벽절나루를 건너 금당천을 건너려다 갑자기 불어난 홍수에 건너지 못하고 복원땅(池內村)을 건너다 보고만 있었다. 무엇이 라고 소리를 지르기는 하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손짓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죄인을 잡으러 오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때 정자를 지키던 사람이 금당천에 낚시를 나갔다. 이상하게도 금당천 한복판에서 강원도 쪽(지금의 가정리 반여울쪽)은 물이 얇고 여울이 쳐 낚시질하기에 좋고, 여흥 쪽으로는 홍수 때문에 물이 범람하여 감히 건너기는 커녕 구경하기도 무서웠다. 사령들은 개울을 건너지 못해 밤을 새우고 정체를 모를 정자주인은 태평히 낚시질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날 경오가 되어 물이 빠지자 건너편에는 또 한패의 사령들이 들이닥쳤다. 완전히 물이 빠지고 나니 어제 도착한 사령들은 그대로 있고, 오늘 도착한 사령들은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여 수십 명의 교군들이 가마를 메고 와서 정자주인을 찾았다. 마을사람들은 그제 서야 그 정자에 머물던 사람이 가정선생인 줄 알게 되었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처녀를 공출하여 노비와 기녀, 후실로 만들고 있었다. 가정선생이 원나라 정동행중서성좌우사(征東行中書省左右司)에 벼슬하고 있을 때 황제에게 고하여 동녀를 차출

해가는 폐단을 없애도록 상소했다. 황제는 가정선생의 상소를 받아들여 공녀의 징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원나라 관리들이 가정을 못 마땅히 여겨 고려에 압력을 넣어 이곳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던 것이다. 하루 전 장마에 왔던 사령들은 가정을 억류하여 멀리 영해로 귀양지를 옮기게 하라는 명을 받고 왔던 사령들이요, 물이 빠진 후에 도착한 사령들은 귀양지를 옮기지 말고 석방하여 대궐로 모셔오라는 명을 받고 내려온 사령들이었다.

반여울은, 천지조화로 불길한 사령들이 도착했을 때 물을 건너지 못하게 홍수가 범람하면서도 가정선생이 낚시질하는 쪽만 얇은 물에 여울이 되었으니 개울 반쪽은 물이 깊고 반쪽은 얇다는 말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북내면 가정리에 가정과 반여울이란 지명이 지금까지 전하며, 가정은 그 후 입궐하여 정당문학 찬성사가 되고 죽은 후에 문효공이라는 시호가 내렸으며, 그 아들은 목은 이색 선생으로, 능서면 번도리 매산서원에 문익점 선생과 같이 위패를 모시고 유림회원들로부터 매년 제향되고 있다.



출처: 『여주시사』



여주 여인의 숭고한 향취

-시어머니는 꾸중새, 시누이는 뽕족새

유명은 | 시인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것이 시집살이라 했다. 여주태생으로 모진 시집살이의 애환을 견디며 숭고한 삶을 산 이름 없는 여인네의 편지가 전해져 소개하려 한다.

조선조, 여주에 사는 가난한 양반 남원 윤 씨의 딸은 충남 임천에 사는 남자와 혼인을 했다. 여주에서 임천의 시댁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다. 여인은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새색시답게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친정 오빠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그러나 몇 날 며칠 만에 도착한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아닌 바로 자신의 남편이 죽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졸지에 마당과부(결혼식만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죽은 여인)가 되고 만 윤 씨 딸은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 하고 말았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아닌 남편이 죽은 것을 친정 엄마와 오빠는 알고 있었지만 시댁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그녀에게 차마 사실을 말해 줄 수 없어 피눈물을 흘리며 거짓을 말한 것이었다.

통절할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딸에게 어머니는 편지를 썼다. <네 오라비 너를 속여 네 남편 장례식에 너를 앞세우고 가는 속이 오죽했으랴, 가엾은 네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불쌍하기만 하구나……!> 졸지에 과부가 된 딸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남편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 하던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오빠 편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어머님 전 소상사리(상제가 사뢰어 올린다) 사념하시느 어머니의 뜻을 생각하와 미정한 경혼과 흠어진 정신을 거두어 지필을 대하오니 새로이 일만 비회가 흥억에 쌓여 무슨 말씀을 아뢰오리까. 저의 죄가 막중하여 남편을 여의고 80세 가까운 홀시아버지께 설움을 끼치고 어머니께는 근심을 끼치게 되었으니 죽지 못한 것이 한이웁니다. 5남매가 다 좋으려 하면 귀천이 어이 있겠삽나이까. 제가 혼자 불행하므로써 하늘이 다른 형제들에게 더 복을 주실지 어찌 알겠사옵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야 차등이 없사오나 경중은 있사오니 중대한 오라비들 충충이 시좌하고 있사운데 딸로 인해 어머님 쇠경에 과상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고달프기는 마찬가지. 현재도 남편 없이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가끔은 가슴을 찌르는데, 조선시대에 젊디 젊은 청춘과부로서 지나긴 삶을 보내야 했던 그녀의 가슴은 그 얼마나 고단하게 녹아내렸을까? 혼례를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었으니 그 박복함도 서러운데, 채얼굴도 익히지 못한 시댁에서 견뎌내며 보내야 했던 그녀의 하세월들은 얼마나 아프고 신산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저릿 아려온다.

그녀가 눈물을 삼키며 수천 번도 더 불렀을 시집살이 노래가 있어 소개한다.

시집살이 노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저즌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덯데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唐椒-당초)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짘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 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님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同壻)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새요 나 하나만 썩는썰세.
 귀 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하여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 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 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白玉) 같던 요 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개 머리 소(沼) 이겼네.
 그것도 소(沼)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여강 (驪江) 의 역사와 문화

조성문 |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인류의 문명이 강을 모태로 하여 발생하였듯이 한반도에서도 강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여주인이 남한강가에 터를 잡고 삶을 시작한 때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4년 여주시 연양동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됨으로써 약 6만 5천 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였고 특히 점동면 혼암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집터와 토기, 석물 그리고 벼농사를 증명하는 탄화된 쌀이 발견되어 이미 3천여 년 전부터 농경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고 있다.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질을 갖춘 여주는 남한강 수운의 발달과 더불어 오랜 세월 번영을 누려왔다. 그 과정에서 역사는 품격을 더하고 문화는 향기를 배가 시키면서 오늘까지 여주인들의 긍지로 남아있다. 이에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여강 가에서 형성되었던 역사와 문화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강과 여주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檢龍沼)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정선에서 동강(東江)이 되고 부론에서 섬강(蟾江)을 끌어들여 여주에서 여강(驪江)이 되었다가 양평에서 북한강(北漢江)과 만나 마침내 한강(漢江)을 이룬 뒤 서울과 김포를 지나 서해로 들어간다. 여강은 여주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땅을 비옥하게 해주었고 생산되는 물산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여주를 지나는 남한강을 여강이라 부르는 것은 어머니의 강인 남한강을 사랑하는 여주사람들의 고마움의 발로이다.

여주의 지명은 고구려 장수왕 63년(서기 475)에 골내근현(骨乃斤縣)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통일신라 경덕왕 때 황호(黃驍), 고려 성종(955) 때 황리(黃利), 고종(1275) 때 영의(永義), 충렬왕(1305) 때 여흥(驪興), 우왕(1388) 때 다시 황려, 공양왕(1389) 때 여흥 등으로 바뀌어 왔다. 그러다가 조선 태종(1401) 때 원경왕후의 내향이라 하여 여흥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세종대왕릉(영릉)을 경기도 광주에서 여주로 옮기면서 1469년 8월 8일 천령현을 여흥부에 합하여 여흥목으로 승격시켰고 이어 8월 18일 여흥을 여주로 개호(改號)하였다.

2) 조운(漕運)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100여 년 동안 왜구가 기승을 부려 바닷길이 막히자 부득이 영남 60여 읍의 전세가 새재와 죽령을 넘어 남한강을 통해서 한양으로 운반되게 되었다. 조정은 밀려드는 전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남한강 주변에 8개의 수조처를 설치하였는데 달천과 남한강 합수지점의 경원창(慶元倉), 덕흥창(德興倉), 앙암창(仰岩倉)과 섬강과 남한강의 합수지점의 흥원창(興原倉) 그리고 여주의 오음포창(汚音浦倉), 퇴평포창(堆平浦倉)이 그것이다. 이들 수조처는 세조때 해로가 안정을 찾자 접근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가흥창(可興倉)과 흥원창(興原倉) 2곳으로 통폐합 되었다.

수참선의 운용과 수부의 확보는 늘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부터 경험있는 인력의 확보와 참선 공급에 곤란을 겪어 온 조정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세의 수송을 사선(私船)업자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그 결과 가흥, 목계, 흥원, 이포 등을 배경으로 사상(私商)과 선운(船運)업자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교역의 발달

남한강 교역의 중심상인들은 객주(客主)였다. 객주는 물상객주(物商客主)와 여각(旅閣)으로 구분 되는데 물상객주는 내륙지방의 화물집산지에 상주하며 화물의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며 여각은 큰 포구에서 배후지의 산물을 수집하여 한양으로 보내고 잡화와 어염을 내륙지방의 상인과 소비자에 중계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교역이 발달함에 따라 물상객주와 여각은 그 구분이 점차 모호해져 일반적 으로 객주라 통칭하게 되었다.

1920년대 기록을 보면 목계에 30-40호, 가흥에 5-10호, 여주에 10-20호의 객주가 있었다. 물류가 활발하게 오가면서 자연적으로 나루터가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여주지역에는 창남, 혼암, 우만, 부라우,

신진, 이호, 조포, 여주, 천남, 양화, 찬우물,

이포, 금사, 하자포, 구미포, 양덕

등 16개의 나루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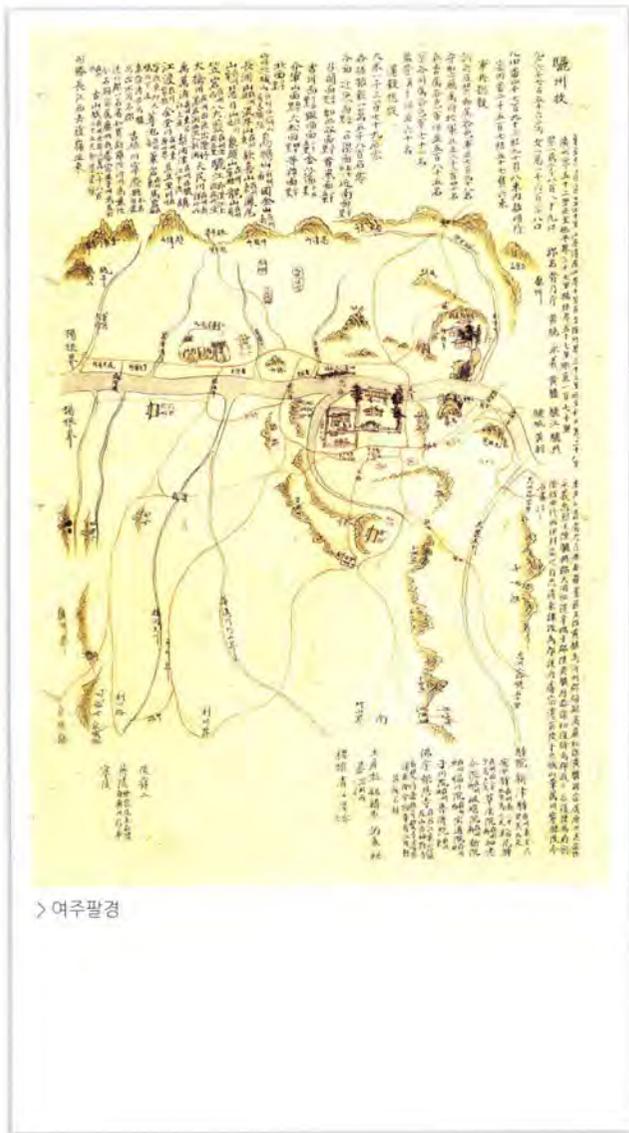
삶이 넉넉하여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풍류를 즐기게 되었는데

강을 바라보는 누정에서의 여흥은 최고의 풍류였다.

시대를 대표하는 내로라하는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누정으로는





> 여주팔경

영월루, 청심루(세종대왕 방문), 봉서정, 침석정, 사우당(농사, 목축, 고기잡이, 나무 베기), 육우당(눈, 달, 바람, 꽃 강, 산), 강월헌(나옹대사), 구룡루, 범사경(泛槎: 물에 떠있는 뚝), 화양정, 침류정, 이화정, 망포정 등 13개가 있었다.

4) 신앙과 민속

남한강 수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레 배의 안전운행을 비는 신당과 사찰들이 등장하였다. 이포의 신당(神堂), 여주의 신록사(神勒寺), 목계의 부흥당(富興堂) 등이 그러하다. 태종실록에 내시별감을 보내 이포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보아 국가에서도 이포신당을 중요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신록사의 동대(東臺)는 뱃길의 무사와 안전을 비는 전탑(塼塔, 일명 巒塔)으로 알려져 있고 목계의 부흥당에서는 봄에 부흥산신과 남한강 용신을 맞이하는 별신제(別神祭)가 열렸다. 별신제와 함께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줄다리는 남한강 포구 여러 곳에서 민속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그 영향을 받은 점동면 흔암리(欣巖里) 쌍용거줄다리는 1987년 전국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한 바 있다. 또 하나 가남읍 본두리의 낙화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낙화놀이는 본두리와 안동의 하회마을 2곳에서만 연희되는 놀이인데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여주의 안동 김씨들과 본향의 김씨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놀이다. 이밖에 마을신앙으로는 강천면 적금2리 장승제, 점동면 처리 산제, 원부리 마을고사, 능서면 왕대리 산신제, 대신면 상구리 동제, 초현2리 산치성, 율촌2리 산신제, 금사면 이포리 삼신당 도당구 등이 있었고 민속놀이로는 답고놀이, 장채놀이, 두레싸움 등이 있었다. 세시민속놀이로는 율놀이, 널뛰기, 그네타기, 달집태우기, 거북놀이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5) 자연경관

여주의 빼어난 경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정 이곡(李穀)은 장차 이 경치 붓 끝에 담으려면 글은 소동파 황산곡이요 글씨는 안진경이라야 하겠네(如將此景入毫端 文要蘇黃字要顏)라고 하였고 그의 아들 목은 이색(李穡)은 여강 한급이 산이 그림 같으니 반은 단청이요 반은 시를 닮았네(驪江一曲山如畫 半似丹青半似詩)라는 절창을 남겼다.

이외에도 금사8영(金沙八詠-이색), 침류정4절(枕流亭四節-영흥방), 여강4절(驪江四節-이색), 여강5절(驪江五節-김구용), 여주8영(驪州八詠-최숙정, 서거정), 청심루4경(淸心樓四景-김안국), 기재8영(企齋八詠-신광한), 이호16영(梨湖十六詠-신광한), 망포정8경(望浦亭八景-백광훈, 이식), 여주8경(驪州八景)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찬탄을 담은 글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중에서 여주8경을 소개한다.

1경. 神勒暮鍾(신록모종, 또는 신록종성) 2경. 馬巖漁燈(마암어등, 또는 마암어화) 3경. 鶴洞暮煙(학동모연) 4경. 燕灘歸帆(연탄귀범) 5경. 羊島落鴈(양도낙안) 6경. 八藪長林(팔수장림, 또는 팔대장림) 7경. 二陵杜鵑(이릉두견, 또는 이릉청풍) 8경. 婆娑過雨(파사과우, 또는 파사망우)

6) 정신, 그리고 인물

인걸은 지령(地靈)이라 했다. 가슴에 사무치도록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 웅대한 북벌의 기상을 품은 효종대왕, 나라의 안녕을 위해 지성껏 임금을 보필한 9명 왕비들의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이 충만한 가운데 치세(治世)는 치세대로, 난세(亂世)는 난세대로 한결같이 붉은 충정을 보여 준 훌륭한 인물들이 여주 땅에서 살았다. 왕사 혜거, 외교의 달인 서희, 문장가 이규보, 최우의 사위 김약선, 시성 이색, 신돈을 혼낸 이존오, 세종의 청백리 유영, 부모를 섬긴 김안국, 신숙주의 손자 신광한, 일본 통신사 경성, 영원한 선비 이식, 불운한 장군 이괄, 도끼정승 원두표, 유성룡의 외손자 조수익, 청렴한 영의정 홍명하, 5세 신동 조한영, 송시열을 능가한 윤휴, 대장 이완,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 노론 4대신 김창집, 양시합격자 홍치중, 정조를

만난 김양행, 정조의 사돈 박준원, 금반형의 주인 김관주, 순조의 장인 김조순, 갑신정변의 주역 홍영식 등 수많은 여주의 인물들이 요소요소에서 역사적 사명을 다하며 시대의 주인노릇을 하였다.

나가는 말

남한강 수로는 근대 교통기관의 도입과 육상운송로의 발달 이전까지 중부지방의 산업 대동맥 구실을 하였다. 고대 이래 이 한강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로서 대륙적 요소와 반도적 요소가 만나 융합되어 독특한 문화를 창출한 지역이다. 더욱이 조선후기부터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지방상업의 영향을 받아 하안포구에 취락이 번성하고, 물산이 집합되면서 하류지방의 문물이 상류지방의 것과 활발히 교류하게 되어 남한강 유역의 우리 여주는 특유의 문화권(여주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비록 수운의 쇠퇴로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과 밀접한 교류는 사라졌지만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었던 문화적 속성은 아직도 여주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 즉중상주의적 사고, 강한 생활력, 풍요한 인심, 중앙과의 문화적 동질성 등이 여주인들을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강은 모성의 상징이다. 때로는 넘치고 때로는 얼어붙더라도 이내 평상을 회복한다. 그 평상심으로 상처를 감싸고 생명의 힘을 북돋운다.

21세기 여주의 현실은 어둡고 불투명하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모성으로 인해 생명을 얻어 누렸듯이 여강에 깃들어 살아 온 여주인들이 여강에서 재기의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년, 족발로 희망을 잡다

유명은 | 시인



바람이 몹시 불던 날, 귀가 길 시장 통에서 우연히 눈에 띄었다. ‘청년족발’. 흰 간판에 적당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다음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작은 글귀가 발을 멈추게 했다. 요즘 협동조합이 유행이라던데 족발가게가 협동조합이라니? 문득 의문이 앞섰다.

협동조합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이용자 소유의 ‘회사’로, 영세업자나 소비자 등이 자본투자보다는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말한다. 협동조합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새로운 대안 경제의 모델로 주목되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여개 가량의 협동조합이 생긴다고 한다.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주에는 아직 협동조합이 그리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청년족발 협동조합’은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청년족발 가게에 들어서자 젊고 잘생긴 청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몸짓에서는 한겨울 입에도 뜨거운 활기가 느껴졌다. 동행한 친구와 함께 족발에 막걸리를 시켜놓고 기회를 보다가 그들이 조금 한가해지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을 물어 보았다.

“족발 가게도 협동조합이 가능한가요?”

청년들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들이 협동조합을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청년축발 협동조합엔 젊은이 다섯이 모두 대표로 되어 있었다.

“모두 여주가 고향인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모두 타 지역에서 왔습니다. 큰형님이자 우리들의 리더인 강재두 대표님하고 막내 홍윤표 씨 그리고 저는 서울 살았고, 지종민 씨와 김연우 씨는 일산에서 살았습니다.” 김남호 씨가 조합원 다섯의 이력을 설명해 주었다.

모두 여주에 연고가 없다는 말에 어떻게 이곳에서 협동조합을 꾸릴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다.

“큰형님인 강재두 씨가 여주에 가게를 얻어 놓았는데, 이곳에서 협동조합으로 축발 가게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서 모두 흔쾌히 모인 겁니다. 당시 저희들 모두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모두 자리 잡고 잘 살아보라고 큰형님이 저희들을 위해 도와주신 거지요. 강재두 형님은 저희들의 멘토거든요.”

강재두 씨는 홍어 무침 도매를 하며 5일 장이 열리는 곳마다 홍어무침을 공급해 준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직업을 거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언제나 앞장섰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에 젊은 후배들이 그를 많이 따른다고 했다.

그들 모두 30대. 여주에 축발 가게를 내기 전 그들 모두는 자신의 일에 열심이었다. 지종민 씨와 김연우 씨는 일산에서 같은 회사를 다녔고, 김남호 씨는 홍대입구에서 친형과 함께 가게를 했었다. 막내인 홍윤표 씨는 중국 상해에서 국제 무역을 전공했고, 군대 제대 후 일본에서 무역회사에 근무하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귀국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 했다고 한다.



청년들 중에 지종민 씨만 기혼자였다. 2012년에 결혼하여 현재 아내는 일산에 머물고 있는 주말 부부지만 곧 여주로 이사를 올 계획이다.

“수많은 먹을거리 품목 중에 하필이면 왜 족발인가요?”

막걸리 한 잔에 살집이 쫄깃한 족발을 입에 물며 그들에게 물었다.

“족발에는 피부에 좋은 콜라겐과 젤라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좋아하고, 숙취 해소는 물론 납이나 중금속 등 독소를 제거해 준다고 해요. 술안주로도 좋고, 야식으로도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니 아이들 간식에도 좋아요.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남녀 노소 누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발이잖아요.”

그랬다. 족발의 쫄깃하고 쫘득한 단맛이 새콤한 막걸리와 어울려 감칠맛을 더했다. 족발은 여성의 피부에도 좋고, 모유 수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나도 딸애를 낳고는 모유 수유를 위해 족발 삶은 물을 지겹도록 먹었던 기억이 있다.

청년들은 가게에 딸린 조그마한 방에서 강재두 씨를 제외한 나머지 4 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오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장사 한다고 한다. 막내인 홍윤표 씨는 남대문에서 손님을 끄는 것보다 더 현란한 말썸씨로 장에 나온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강재두 씨를 따라 5일장을 다니면서 터득했다는 그의 배짱 두둑하고 구수한 입담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청년 족발은 11월 16일 하리 재래시장 골목에 둥지를 틀었다.

“가게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여주 사람들이 아닌 낯선 청년들이 하는 족발 가게라 그런지, 아직은 사람들이 시식도 잘 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5일 장 다닐 땐 장돌뱅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희에겐 꿈이 있어요. 꼭 성공해서 저희들처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조합원으로 받아드릴 거예요. 젊은이들이 패기를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을 테구요. 돈을 벌어서 어려운 이웃 뿐 아니라 아프리카 결식아동을 돕고 싶어요. 그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꿈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젊은이들이 패기 하나로 뭉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굶는 아이들까지 돕고 싶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가늠하고 기특한지 그들의 손이라도 덥석 잡고 싶은 마음이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다. 좌절을 딛고 그들처럼 희망으로 비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한다. 젊은 가게, 협동조합 청년족발! 그들에게서 젊은이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본다.



여주의 해맞이



서순태

연말이 되면 두 딸을 데리고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고 동해의 일출을 보며 귀가하는 것이 우리 집 해맞이 행사다. 딸들이 사회인이 되고 시집을 보내면서 해맞이는 흐지부지 되었고, 그동안 우리 내외는 분당에서 여주로 이사를 했다. 여주해맞이 행사가 있다고 했지만 서너 해를 버려다 말았고 거의 십년을 해맞이를 못 했다.

2013년 첫 날 영월루에서 해돋이를 보려고 홀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다.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밤사이에 내린 눈의 설경 때문에 마음이 설레어 눈꺼풀에 붙은 잠이 싹 달아났다. 함박눈이 오고 있었지만 우산 없이 모자를 눌러쓰고 밖으로 나왔다. 너무 적막하여 무섭기도 했지만 흰 눈발에 나의 첫 발자국을 찍는 것을 대견해 하며 여주대교로 향했다. 동네 골목길을 벗어나 큰 도로에 나오니 멀리서 행사 진행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날마다 뜨는 해이지만 새해 첫날이라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지난 일 년 마무리 잘 하였음에 감사하고 올 한 해도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자신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걸었다.

여주대교와 나란히 있는 연인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고 곳곳 드럼통에 피워둔 장작불과 따뜻한 차가 있었다. 해맞이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독백이 절로 나왔다. 차를 마시며 연인교 위에서 해 뜨는 곳을 바라보니 떡가루 같은 눈발이 온 천지를 덮을 듯이 내리고 여강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내리는 눈으로 시야는 흐렸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돛단배위에서 동동 거리는 북소리와 더불어 '소원성취'하라는 사회자의 목소리, 난간에서

합장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아는 얼굴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말 등등.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은 나에게 더 힘찬 기운을 느끼게 하였다. 평소에 걸어보고 싶었던 연인교에 나와 있어 상기된 나는 다리간간을 살펴보았다. 지난 여름에는 아취형태의 분수아래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마냥 신기했었다. 그때의 분수장치가 궁금해서 난간을 살펴보며 계속 영월루 방향으로 걸었다. 군중들 틈에서 아는 이 없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여주시민 모두가 이웃인 양 동화되어 모든 것이 정답게 보였다.

흐린 날씨로 인해 일출을 볼 수는 없지만 해돋이 시간에 맞추어 진행자의 신호로 모두가 함성을 질렀다. 나도 크게 고함을 내 질렀다. 속이 후련해졌고 왠지 만사형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고요히 내려 만물을 덮어주는 눈이 신의 은총처럼 느껴져 감사의 기도를 했다. 군중 틈에 홀로 있지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 성호를 그었다. 찬 기운을 없애려고 몸을 들쭉거리며 눈을 털고 옆을 보니 우산 없이 눈을 맞은 이들은 움직이는 눈사람 같아 보였다. 장작불과 따뜻한 차가 있어서 추위는 견딜만하여도 성당에 갈려면 더 머물 수가 없었다. 영월루 가는 어느 지점에 떡국이 마련되어 있다는 진행자의 소리와 합창단이 부르는 '희망의 나라로'를 들으며 집으로 향했다. 마음으로 노래가사를 음미하며 대로를 피해 강둑 길로 천천히 걸었다.

이른 아침의 강둑 길은 한 폭의 수묵화였다. 길 양 쪽의 눈꽃을 피운 가로수는 하얀 산호 같고 병풍처럼 펼쳐져서 그 앞을 지나는 모든 것들을 환영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연의 위대한 선물이었다.

가끔 저녁에 강둑 길로 산책 나와 걸을 때 여주다리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다. 초승달, 반달, 보름달의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일출도 궁금했었다. 도시의 분주함과 편리함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자연의 품이 나를 편안하게 해 준다는 것을 여주로 옮겨 살면서 느끼고 있다. 오늘 해돋이를 눈(目)으로 못 보았지만 눈(雪)으로 덮인 하얀 세상에서 알찬 해맞이를 했다고 나를 다독이며 귀가했다. 찬 기운이 가득한 두 손으로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감싸주며 일 년 후의 해맞이에 동행하자고 자신 있게 약속을 해 두었다.

타향이지만 고향 같은 품을 내어준 여주에서 친구와 이웃도 생겼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도 있어서 행복하다.



전통의 멋, 전주 한옥마을

윤석민

날씨는 청명하고 좋았다. 모처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하니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지만 그리 피곤하지 않았다. 오전 8시, 여주 보건소 주차장에서 버스 두 대가 출발했다. 여주문화원에서 '2013년 추계문화 유적답사로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가는 것이었다.

세 시간 반 정도를 달려 전주에 도착했다. 시간은 이미 12시. 여행의 설렘으로 도착한 전주에서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다. 비빔밥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답게 경갈하고 맛있었다. 십 여 가지가 넘는 채소와 고명이 담긴 비빔밥을 비벼서 먹는, 유기그릇에 담겨 나오던 전주 비빔밥은 지금 생각해도 칭이 꼴깍 넘어갈 만큼 유혹적이다.

점심을 먹고 한옥마을로 향했다. 한옥마을을 내려다보기 위해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을 올라가야 했는데, 그곳에 오목대가 있었다. 오목대는 1360년 이성계가 남원 운봉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종친들과 승전 축하잔치를 벌인 곳이라고 한다. 오목대에는 고종황제가 친필로 쓴 '태조고황제주필유지'비가 있다.

오목대에서 한옥 마을을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린 듯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사진을 찍은들 그 감동까지 찍을 수 있을까? 그야말로 한옥마을은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고대와 현대가 맞닿아 있는 매혹적인 도시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그대로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한옥마을은 마을 전체가 옛날 모습 그대로 한옥으로 이루어졌는데, 100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는 해설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부러웠다. 여주에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현대와 고대가 맞닿아 있는 저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화유산의 소중함이 새삼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어 태조의 영정이 모셔진 경기전을 둘러보았다. 1400년대에 창건된 경기전은 태조의 영정뿐만 아니라 각종 중요한 유적들이 보관된 곳이기도 하다.

경기전 마당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은행잎 하나를 주워 들고 이곳을 거닐었을 땀 선비들을 상상해 보았다. 기풍 있고 멋스런 선비들이 거닐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정겨웠다. 경기전을 나와 시내 구경을 하였다. 거리거리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전주의 특색인 비빔밥을 응용한 외플, 비빔밥 토스트 등등 이름 모를 음식들이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점심만 먹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을 전부 맛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뿐 아니라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이곳으로 다시 여행을 와서 구석구석, 음식 하나하나 전부 먹어보리라 결심하게 되는 거리의 풍경이었다.

거리 끝에 있는 전동 성당으로 들어섰다. 전동성당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던 장소에 지어진 성당으로 프랑스 신부가 설계 감독을 하였고, 1914년 완성되었다고 한다.

100년 된 성당을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반하고, 그 다음엔 어디선가 본 듯하여 고개를 가우뚱 거리게 된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니 그 모습이 더욱 낯익다. 그때야야 드는 생각, 아하, 바로 명동성당이구나! 그랬다. 전동 성당은 겉모습과 내부 모습이 서울의 명동성당과 아주 흡사했다.

전동성당은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한 건물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힌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리 만큼 아름답고 고결하다.

박신양과 전도연이 주연으로 열연했던 영화 <약속>에서의 결혼식 장면이 전동성당에서 촬영된 것이라 한다.

전동성당을 둘러 본 후 모두 모여 막걸리를 한 잔 했다. 그곳은 특이하게도 안주만 시키면 막걸리는 얼마든지 공짜로 마실 수 있었다. 전주 한옥 마을만의 특색이었다. 막걸리 한 잔과 전주의 불거리에 취해 하루해가 저물었다. 여주로 오는 시간 내내 전주의 아름다움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지인들과 반드시 다시 찾으리라 다짐을 해본다. 좋은 곳을 여행시켜 준 문화원에 감사한다.

조기울·해촌 낙화(落火)놀이



낙화(落火)놀이는 여주시 가남면 본두1리와 2리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행해지던 전통민속놀이이다. 해촌이라는 마을은 고려 공민왕 때 한 고승이 해나무를 심고 절을 세운 후 '해나무골'이란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고승이 심었다는 해나무가 살아 있는데 많이 크지 못했으나 밑그루는 고목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후 조선조때 평산(平山) 신(申)씨가 이 마을에 정착하여 해촌이라는 이름으로 신씨 동족마을을 형성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낙화놀이는 음력 정월 16일에 행하는데 이때 각 가정에서는 소나무 껍질과 숲을 섞어서 부순 가루를 메밀짚 재로 잣물을 들인 창호지로 말아 직경 8cm 정도, 길이 50cm쯤 되게 불태울 낙화와 연등을 준비한 한다. 그리고 저녁에 마을 중심부에 있는 향나무와 미루나무 사이에 줄을 매고 낙화와 연등을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점점이 떨어져 날리며 장관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밑에 잣상을 차려 술을 부어놓고 마을의 태평과 안녕을 축원하는 동제(洞祭)를 지낸다. 이 놀이는 지금까지도 매년 재현되고 있으며 본두1리에서 행할 때는 '조기울 낙화놀이', 본두2리에서 행할 때는 해촌 낙화놀이라고 부른다.

출처: 「여주시사」

삼박자를 갖춘 도예인, 도예가 박재국





예술작품은 그 사람 됨됨이를 들어내지요. 때로는 숨은 채로, 때로는 알기 쉽게 읽히기도 합니다. 저마다 보는 눈만큼 감상합니다. 같은 업종의 도예인 들이라면 기법과 재료가 먼저 읽혀질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그 쓰임새가 먼저 눈길이 갈 것이고, 인문소양을 가진 이들은 미술사적 지식이나 미학적 해석의 잣대로 보려 할 것입니다. 장인학, 실용성, 인문교양 모두 도예 작품의 이해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박재국 도예가를 장인학과 인문학을 빌어 말할 계재는 아니지만 청하니 한마디라도 답하지 않을 수 없네요. 답할 것은 세 가지 뿐입니다. 박재국은 진짜 장인이라는 사실이며, 생존형 예술가 이자 전통의 창조적 계승자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최대의 도자기 산지인 여주에서 20여년 작업 했으면 장인 훈련의 기초를 짐작하고도 남고, 도예로 먹고 살만큼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도예전통의 학습과 새 창조를 끊임없이 수련하는 자세로 임하는 도예가 라는 사실도 박재국의 미덕입니다.

이 삼박자 - 장인, 실용, 학습의 자세와 역량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추며 즐기치게 용맹정진하는 박재국 도예가의 앞길은 그래서 예운이 밝을 것입니다.

조각가 김봉준



세종시대의 복지(福祉)

조성문 |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복지에 관한 세종대왕의 남다른 생각은 '천민(賤民)도 천민(天民)이 아님이 없다.'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발전한다. 비록 조종(祖宗)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오던 신분질서를 타파할 수는 없지만 천대 받는 천민이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이 하늘이 만든 귀한 하늘 백성임을 선언한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혜안이요, 인간애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세종대왕 초기에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사짓기 어려운 시기였다. 현대과학은 세종치세의 초기가 소빙하기로서 기온이 저하 되고 강수량이 급감하는 시기였음을 밝혀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백성들의 먹거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눈물겹다.

“가뭄이 너무 심하다... 장차 벼농사 형편을 나가보리라.” 하고 드디어 서문 밖에 나가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대언들에게 말하였다. “금년 벼농사는 모두들 꽤 잘 되었다.”고 하더니, 오늘 돌아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 이날 행차에 다만 입만한 내금위 사금만 거느리고 산(織; 양산)과 선(扇; 햇빛 가리개)을 쓰지 않았다. 벼가 잘 되지 못한 곳을 보면, 반드시 말을 멈추고 농부에게 까닭을 물었다. 점심을 들지 않고 돌아왔다. - 세종 7년 7월 1일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온 세종대왕은 고민에 빠졌다. 하루 빨리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을 살릴 수가 있었다. 급한 대로 각도의 산천과 성황과 신사에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서울과 경기의 여염 사람들이 제집 사당과 마을 고사터에 모여 기도하게 하였다. 임금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내가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원단(圓壇;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에 향을 전하던 날은 밤낮을 꼬박 우두커니 서서 비를 기다렸는데, 서풍이 그치지 않아서 마침내 비는 오지 않을 것인가 깊이 염려하였다.” - 세종 7년 7월 11일

아침부터 밤이 새도록 서성이며 비를 기다리는 임금과 하늘을 향해 울부짖은 백성들의 간절함이 통했던지 사흘 만에 비가 내렸다. 그러나 그 비도 흠족하지 않았다. 다시 세종대왕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18일부터 앉아서 날 새기를 기다렸다. 이 때문에 병이 났으나 외인(外人)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여러 대신이 알고 고기 찬 드시기를 청하였다. - 세종 7년 7월 28일

백성들이 겪는 고충을 알고 이의 해결을 위해 앉아서 낱밤을 새우는 임금, 그로인하여 병이 난 임금,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던 임금, 임금의 이런 진정성이 신하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제 조선 전체는 먹을거리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된다.

세종 12년, 전국의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의 비법을 모은 '농사직설'이 반포되어 기술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졌고 '수차'가 장려되어 논밭에 물대는 일이 편하게 되었다. 15년, '혼천의'가 제작되니 관측된 천체의 위치를 통해 시간과 절기를 알 수 있게 되었고 16년에는 '자격루'가 발명되어 정확한 하루의 시간을 알게 됨으로서 백성들이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23년에 발명된 '측우기'로 전국 각지의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27년, 마침내 '칠정산내외편'을 만들어냄으로써 중국과 다른, 우리 실정에 맞은 독자적인 역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과학기구들은 먹을거리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고 풍성하게 해주었다.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자 세종대왕의 복지는 먼저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집중되었다. 환(鰥)은 홀아비요, 과(寡)는 과부를 말하며 고(孤)는 고아, 독(獨)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다. 최저 빈곤층이 안정되자 복지의 확대가 시작되었다. 나이 많은 자와 병든 자, 돌보는 이 없는 맹인과 스님, 구휼대상에서 제외된 절벽이 어린아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굶주린 왜인, 중국인에게 까지 그 혜택이 늘어났다. 급기야 감옥에 수용된 죄인들의 가족에게도 복지의 손길이 미쳤다.

“죄를 범하여 옥(獄)에 있는 홀아비(鰥夫)와 과부 및 형벌을 받은 사람의 어린 자식들을, 만약 돌보아 기르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니,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절벽이 아이는 절 있는 사람에게 주며,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되 그 지방에 있는 관리로 항상 보살피어 기르게 하며, 만일 잘 보살피지 아니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한다면, 서울 안에서는 헌사(憲司), 지방에서는 감사가 규찰해 다스리게 하라.”- 세종 13년 7월 28일

세종대왕시대의 구휼방법은 크게 환곡(還穀)과 진제(賑濟)로 나눌 수 있다. 환곡은 춘궁기에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되돌려 받는 국가비축 곡물을 말하며 진제는 굶주리는 백성에게 무상으로 곡식 또는 밥이나 죽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상환시기가 도래해도 이를 탕감해주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곤 하였다. 신하들이 상환 의무에 대한 백성들의 나태와 국가 비축미의 부족을 걱정할 때도 오히려 한국의 상환에 대한 지방수령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빈부의 차이를 세밀히 살펴보고 상환을 결정하라고 지시한다. 진제에 관한 세종대왕의 배려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굶주린 백성으로 하여금 즐겁게 진제장에 모이게 하라.”- 세종 19년 2월 6일

세종 19년,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세종대왕의 끝없는 사랑이 담긴 외침이다. 당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진제장이 설치되면 관리들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근각(根脚, 죄를 지은 사람의 생년월일과 용모와 그의 조상을 기록한 사항)을 묻고 소종래(所從來, 어디서 왔는지, 또는 지내온 내력)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던 사람들이 제 때에 마시고 먹지 못하여 길가에서 죽는 자가 많았다. 다시 세종대왕의 강력한 지시가 이어진다.

“이제부터는 무릇 진제장에 이르는 자는 감고와 색장 등이 그 소종래와 근각을 묻지 말고 오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구출하고, 호적에 빠진 사람들도 역시 근각과 이유를 묻지 말고 그 고하는 바에 따라서 모두 다 진출하여 주고, 후일 진제가 끝난 뒤에는 이름을 기록한 문부(文簿)를 일체 모두 태워 없애 인심을 편안하게 하라.”- 세종 19년 1월 11일

세종대왕이 꿈꾸던 나라는 융평(隆平)의 세상이었다. 정치의 당면과제가 무난히 해결되어 내우외환이 없고 국민이 영속되는 드높은 평화의 세상이다. 그러다가 그 꿈이 조금 더 커졌다. 그것이 풍평(豊平)의 세상이다. 융평의 세상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더한 세상이 풍평의 세상이다. 세종대왕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전진한다.

“...경(卿)들은 나의 간절하고 측은한 뜻을 몸 받아서 일체로 기성된 법에 따라 구휼(救恤)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어질고 장수하는 나라를 이루도록 하라.”- 세종 29년 6월 24일

이렇듯 세종대왕이 몸과 마음을 다해 꿈꾸었던 ‘백성이 어질고 장수하는 나라’야말로 21세기 우리 복지가 도달해야 할 행복이자,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여주도서관 특강 ▲

경기도민속예술제 ▲

한글날 행사 ▲

문화원 활동 소개(2013년도 하반기)

문화 사업

- **어르신집현전** | 7/1, 7/8, 7/15, 7/22
-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참가(14명)** | 7월 25일 - 28일(4일)
- **여주문화 알리기 특강** | 8/28, 9/10 9/13, 9/25, 10/7, 10/9, 11/23, 11/27
- **여주와 희망 특강** | 10/16, 10/23, 10/30
- **노인복지관 특강** | 10/31, 11/7, 11/14
- **여주도서관 특강** | 10/11, 11/7, 11/9
- **여주교도소 특강** | 11/4
- **고3 특강** | 12/3, 12/4
- **경기도민속예술제** | 9/27 - 28
- **한글날 행사** | 10/9
- **여성위원회 봉사(도자기축제)** | 10/15
- **문화유적답사(전주)** | 10/24
- **시장 면담(문화원 지원 협의)** | 10/29
- **명성황후 송모제** | 11/17
- **시승격 축하공연** | 11/23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합동연수** | 11/21
- **제9회 목사 류주현 문학상 시상식** | 12/23

회의 개최

- **부원장회의** | 7/10, 8/7, 10/14, 12/13
- **이사회** | 8/9, 12/23



△ 문화유적 답사(전주)



△ 명성황후 송모제



△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2013년 하반기 문화원 회원 동정

경조	7월	이해준 회원 딸 결혼, 원장님 시승격행사 추진위원장 위촉
	9월	김태수 부원장 장남 결혼, 탁옥남 회원 장남 결혼
	10월	원장님 차남 결혼, 이은기 회원 딸 결혼
	11월	김규배 이사 딸 결혼
	12월	이민수 회원 아들 결혼
상조	7월	한민희 과장 시모 별세
	12월	한민희 과장 부친 별세
	12월	손정국 회원 모친 별세

상임고문 원용문, 김덕배, 박찬수

원장 김문영

부원장 김태수, 박광우, 유인성, 경규명, 전호동, 이병렬

이사 강현숙, 김규배, 김영길, 김윤기, 김정우, 김종성, 김창석, 박병창, 박형섭, 신재훈, 오병준, 이두연, 이용섭, 이정식, 이준필, 임영현, 전기중, 정익채, 조은한, 주명덕, 최병식, 한득현

감사 안동희, 박문신

여성위원회 회장 : 엄애경 부회장 : 심옥순, 김옥강 감사 : 윤정윤 총무 : 안숙자

강상희, 고순자, 김경옥, 김경자, 김남욱, 김동실, 김명식, 김새심, 김성미, 김영석, 김은경, 김인순, 김춘옥, 김한숙, 김향란, 나정희, 남상분, 박미란, 박정옥, 박정은, 배순예, 서근옥, 손현미, 송경숙, 송미영, 송영순, 신음전, 신정애, 안귀자, 안영복, 양민자, 우춘자, 유인호, 원유화, 윤은희, 이경순, 이도연, 이상옥, 이승애, 이애숙, 이애순, 이영명, 이용남, 이지영, 이홍숙, 임호영, 장수연, 장순연, 조문희, 조연비, 최난이, 최옥주, 최옥희, 추형숙, 한제연, 함인자, 홍이표, 추형숙, 한제연, 함인자, 홍이표.

회원 김광섭, 김문환, 김상민, 김은희, 김진학, 남창현, 류호창, 문성우, 박관우, 박덕규, 박병진, 박수근, 박준환, 박치윤, 박현일, 서중훈, 손현덕, 신건화, 안용호, 안현주, 유용화, 이난우, 이대성, 이민수, 이보택, 이영옥, 이영재, 이은순, 이장호, 이태희, 이항진, 이현숙, 정승철, 조상민, 조성문, 탁옥남, 하근수, 한덕우, 황명자, 홍석영, 차상규

후원회원 강대준, 강래희, 강영실, 강혜옥, 경범수, 경치호, 곽상교, 곽순희, 곽윤식, 곽현용, 곽호건, 구본만, 권동섭, 권영옥, 권오재, 권오준, 권오성, 권오중, 권진용, 권치영, 권혁환, 길병동, 김 욱, 김경근, 김경미, 김계용, 김광수, 김규상, 김규창, 김근수, 김근식, 김기동, 김기환, 김남화, 김대진, 김덕하, 김미진, 김병철, 김병훈, 김상화, 김상경, 김상국, 김선준, 김성환, 김소희, 김순옥, 김순자, 김양희, 김연자, 김영구, 김영기, 김영숙, 김영자, 김윤희, 김용환, 김의숙, 김재영, 김재용, 김재인, 김재환, 김정구, 김정훈, 김준기, 김창환, 김태균, 김태일, 김태환, 김학모, 김학범, 김한석, 남기원, 남영우, 노재인, 민경호, 민문기, 민춘자, 박광민, 박광석, 박광재, 박광천, 박기순, 박래화, 박명기, 박명옥, 박복동, 박성도, 박성철, 박숙희, 박암평, 박영만, 박용관, 박은미, 박의원, 박재동, 박재명, 박종록, 박정득, 박춘수, 박현근, 박현준, 박흥철, 방명수, 백계옥, 백규현, 백성현, 변현구, 변현미, 서병용, 서인자, 서정식, 서정희, 성교훈, 성낙진, 손동식, 손성일, 손정국, 송영숙, 신영해, 신철용, 신현대, 신홍선, 심우형, 심재철, 심종현, 심호경, 안미숙, 안용석, 안재훈, 양광석, 양성모, 양승호, 엄정민, 엄정희, 오봉숙, 오연옥, 오재호, 오정택, 원경희, 원정호, 원진식, 유동일, 유명숙, 유명은, 유양서, 유연상, 유영대, 유용호, 유유순, 유종석, 유호진, 유희선, 윤경섭, 윤경희, 윤성식, 윤태남, 윤희록, 윤희정, 이경란, 이경세, 이경애, 이관희, 이동선, 이두환, 이상춘, 이상훈, 이수진, 이영숙, 이용수, 이우섭, 이은기, 이재규, 이재문, 이정선, 이종길, 이종득, 이종성, 이주현, 이준호, 이지민, 이진수, 이진원, 이진표, 이진호, 이치섭, 이태한, 이필재, 이한명, 이해준, 이현정, 이혜숙, 이환교, 이효동, 임경수, 임병옥, 임상규, 임상식, 임승일, 임창선, 임천규, 장금향, 장배근, 장보선, 장영동, 장영철, 장현미, 장현순, 전창중, 전충기, 정성근, 정성범, 정숙영, 정연숙, 정완식, 정은주, 조두현, 조미령, 조성경, 조영주, 조용민, 조정제, 조종화, 조종현, 조태상, 조현광, 조현주, (주)거산, 주경옥, 주동근, 주서운, 주영석, 주재성, 지석양, 지웅길, 지현우, 차세옥, 차용호, 창상경, 채용훈, 최 욱, 최명수, 최병덕, 최은영, 최익규, 최중만, 최종범, 최진상, 추금수, 한기열, 한효정, 한효주, 한희봉, 함명수, 함용석, 허 덕, 홍성옥, 홍재덕, 황갑용, 황창성, 황형기

- 고문 3명, 임원 31명, 여성위원 66명, 일반회원 41명, 후원회원 259명 - (2013. 12. 3 현재 총인원 400명)

여주문화원 회원가입 안내

여주문화원은 여주군의 시 승격을 맞이하여 지역문화 창달을 통한 문화융성과 지속가능한 보존·전승·계발을 위해 혁신과 창조의 열망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여주문화원은 여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문화사업 활성화를 지향하며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주문화원의 사업은

-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전승·계발 및 창달
- 향토사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수집
- 지역 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사회교육 활동 등

■ 회원으로 함께하시면

- 각종 문화행사 및 교육에 우선 참여
- 문화원 유적답사 등 문화활동에 초청
- 문화원 발간자료의 수령 및 소장 자료의 대여 및 열람
- 문화원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개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참여

■ 가족이 되시려면

- 문화원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작성. (일반회원·후원회원, 회비 월 만원)
- 또는, 전화 031) 883-3450으로 문의

‘여강처럼’ 원고모집

「여강처럼」은 문화원 가족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지혜로 만들어 집니다.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여주에 대한 추억과 제언 등 형식과 내용에 구애됨 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 : 경기도 여주시 신북사길 6-6(여주문화원)
 홈페이지 : www.yeojucc.co.kr > 커뮤니티 > 온라인상담

▶ 보내실 때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계간 <驪江처럼> 통권 제22호, 2013년 12월 발행
발행인 | 문화원장 김문영 편집인 | 편집위원장 박광우 발행처 | 여주문화원
편집위원 | 전기중, 유명은, 안동희 디자인 · 인쇄 | 남한강종합인쇄(031. 886. 7353)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길 6-6(천송동) | Tel 031. 883. 3450 | www.yeojucc.co.kr

龍成 (주) 용 성 건 설

대표이사 이 병 열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양2로 871

TEL 031. 883. 3127

FAX 031. 883. 1317

H·P 010. 3121. 1120

E-mail ys31211120@hanmail.net

都市
ARCHITECTURE & DESIGN

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홍 성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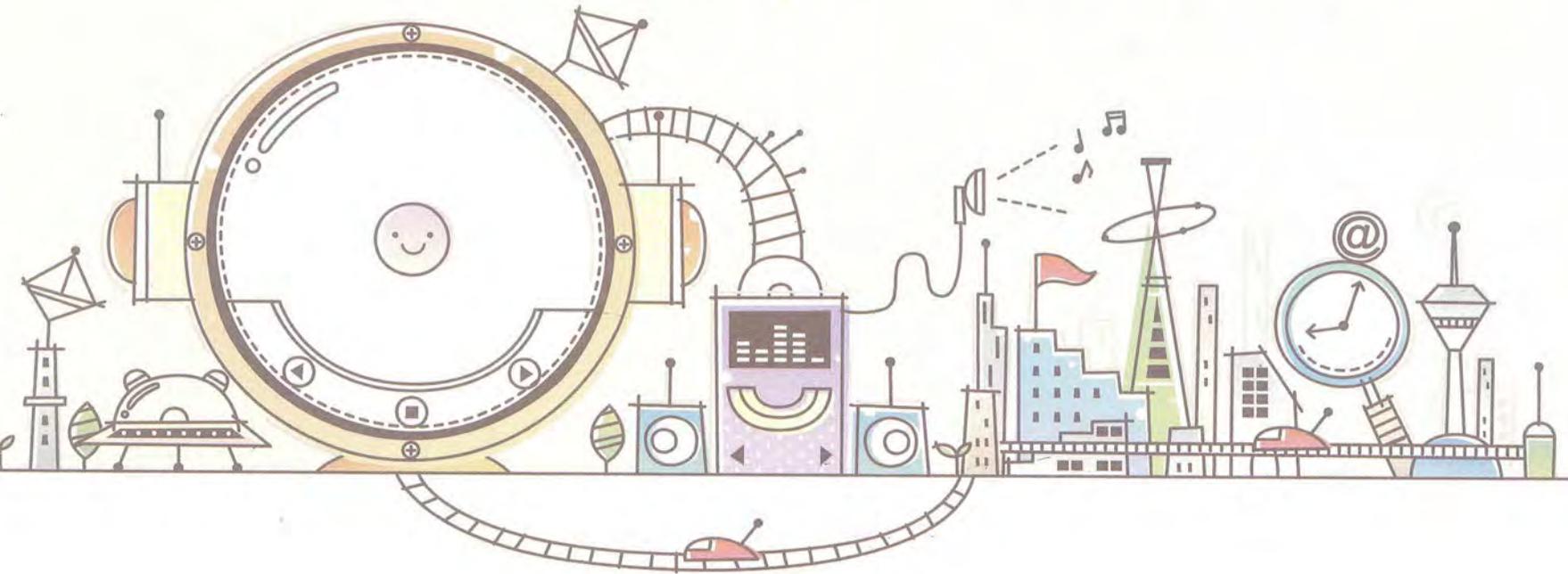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72(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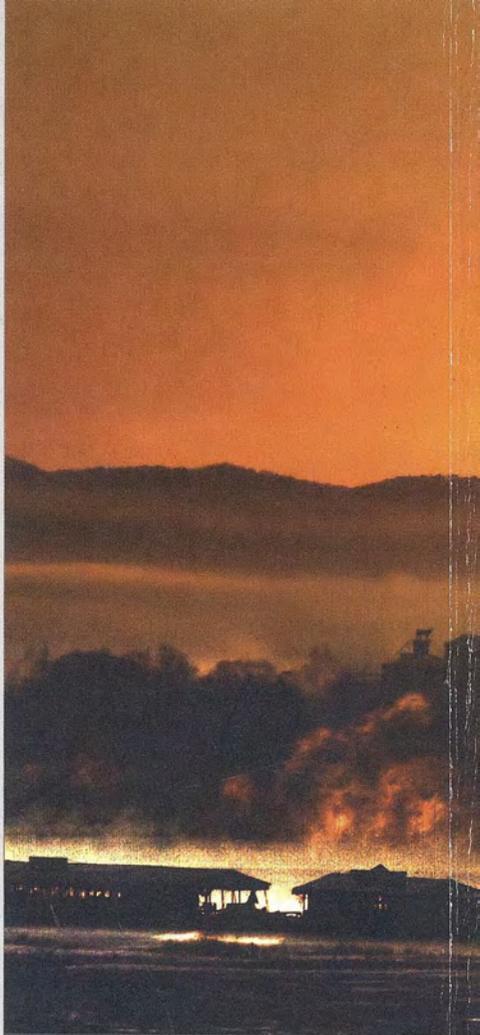
TEL 031. 886. 0361 / 0360

FAX 031. 886. 0367

H·P 010. 4581. 0361

E-mail ds0361@hanmail.net





여주문화원
www.yeojucc.co.kr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신록사길 6-6
Tel. 031 883 3450